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Did Silla Try to Unify the Three Kingdoms?

저자 (Authors)	전덕재 Jeon Deogjae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19.8, 178-207(32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19.8, 178-207(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9482
APA Style	전덕재 (2019).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역사비평, 178-20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0/26 16: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을까

전덕재

1. 7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7세기 중후반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당(唐)과 일본, 심지어 거란과 말갈까지 참여한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676년에 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7세기 중후반에 한반도를 주요 무대로 하여 전개된 전쟁에 삼국뿐만 아니라 당과 일본, 말갈과 거란까지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국제전’ 또는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이라고⁰⁰¹ 명명할 수 있다. 세계사적인 시야에서 이 전쟁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네이밍(naming)이 가장 합리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중국사의 시야에서 바라볼 때, 7세기 중후반에 당이 백제와 고구려 국가를 멸하고 기미주(靑麩州)로 만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당 왕조에 의한 백제·고구려 정복전쟁’ 또는 ‘당 왕조에 의한 백제·고구려 병합전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일본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

하였다가, 백강(백촌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였다. 따라서 일본사의 시야에서 바라보건대, 이 전쟁은 ‘일본의 백제 구원전쟁’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한국인 또는 한국 민족의 관점에서 이 전쟁에 접근할 때, 현재까지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으로 명명하는 견해이고,⁰⁰² 다른 하나는 ‘신라에 의한 백제병합(통합)전쟁’으로 명명하는 견해이다.⁰⁰³ 두 견해는 신라인들이 고구려를 통합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렸다. 또한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두 견해를 견지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드러났다.⁰⁰⁴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국가 또는 민족의 구성원인가의 여부, 신라 지배층이 고구려·백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전쟁에 대한 국가와 민족 구성원에 따른 인식의 편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물론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으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백제병합(통합)전쟁으로 부를 것인가는 ‘사실 확인의 범주’에서 논의할 여지가 없지 않다. 즉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여 제기된 주장은 생명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해석상의 편차를 보이는 사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거기에 담긴 올바른 역사상을 추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7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본 논고가 향후 7세기 중후반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7세기 후반 신라의 북쪽 경계는 임진강이었을까?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을 신라에 의한 백제병합(통합)전쟁이라고 이해하는 연구자들(이하 백제병합전쟁론자)은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676년 신라와 당과의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신라의 북경이 임진강이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676년에 신라가 차지한 지역은 원래의 신라 지역과 백제 영토에 불과하였으므로, 신라는 결과적으로 백제만을 병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은 신라에 의한 백제병합(통합)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백제병합전쟁론자들이 내세운 핵심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의 기록들이다.

상원(上元) 2년(675) 2월에 계림도행군대총관 유인계가 신라의 무리를 칠중성(七重城)에서 크게 깨뜨리고 돌아왔다. 신라가 이에 사신을 보내 옹드려 죄를 청하고, 아울러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토산물을 헌상하였으므로, 법민(文武왕)의 관작을 회복시켜주었다. ① 이미 백제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고려의 남경(南境)에 이르렀다(既盡有百濟之地 及高麗南境). 동서가 900리이고, 남북이 1,800리이다. 경계 내에 상(上)·양(良)·강(剛)·웅(熊)·금(金)·진(鎭)·무(武)·한(汗)·삭(朔)·명(明) 등의 주를 두었다. — 『당회요』 권95 신라.

상원 2년 2월에 인계가 신라의 무리를 칠중성에서 깨뜨리고, 말갈병으로써

바다를 통해 (신라의) 남경(南境)을 공략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고, 매소성에 주둔하여 신라와 세 번 싸워 모두 물리쳤다. 법민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사죄하며, 계속해서 공물을 바치자, 인문이 이에 돌아와 신라왕을 그만두었으므로, 조서를 내려 법민의 관작을 회복시켜주었다. ㉠ 그러나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취하고, 마침내 고려 남경에 이르렀다(然多取百濟地 遂抵高麗南境矣). 상·양·강·웅·전·무·한·삭·명의 9주를 두었다. — 『신당서』 신라전.

종래에 백제병합전쟁론자들은 밑줄 친 ㉠, ㉡ 기록에 전하는 ‘고려남경(高麗南境)’을 ‘고려(고구려)의 남쪽 경계선’이라고 해석한 다음, 675년에 신라가 백제의 영토를 차지하고, 고구려 남쪽 경계선에 이르렀다고 이해하였다. 즉 675년에 신라는 임진강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⁰⁰⁵ 그런데 ‘경(境)’이라는 한자는 ‘경계(境界)’라는 뜻과 더불어 ‘경역(境域)’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⁰⁰⁶ 따라서 ‘고려남경(高麗南境)’을 ‘고려(고구려)의 남쪽 경역’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5년(675) 2월 기록에 당 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회복시켜주었다고 기술한 다음, ‘그러나 백제의 땅을 많이 취하고, 마침내 고구려의 남경에 이르러 주군으로 삼았다(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고 서술되어 있다. ㉢ 기록이 이것의 원전임이 분명하다. 다만 『삼국사기』 찬자는 ‘고려남경’을 ‘고구려의 남쪽 경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遂抵高麗南境矣’를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이라고 바꾸어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찬자가 ‘고려남경’을 ‘고구려의 남쪽 경역’이라고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회요』와 『신당서』

의 찬자 역시 그렇게 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구당서』 신라전은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평정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어 ‘이로부터 신라가 점차로 고려(고구려)·백제의 땅을 차지하게 되니(自是新羅漸有高麗百濟), 그 영역이 더욱 넓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구당서』 신라전에는 고구려 멸망과 나당전쟁에 관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나당전쟁 종결 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나라 사람들이 나당전쟁 후에 신라가 백제 땅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경역도 차지하였다고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당서』는 945년에 완성된 것이고, 『당회요』는 961년에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당회요』의 밑줄 친 ㉠ 기록의 내용은 『구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기록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既盡有百濟之地 及高麗南境’을 ‘이미 백제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고려(고구려)의 남쪽 경역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미이다. 『신당서』 신라전의 ㉡ 기록의 내용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신당서』의 기록에 ‘남경(南境)’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 『자치통감』 권202 고종 상원 2년(675) 2월 기록에는 ‘유인케가 신라의 무리를 칠중성에서 크게 깨트렸다. 또한 말갈로 하여금 바다를 통해 신라의 남경(南境)을 공략하게 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인케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통해 『신당서』에서 말갈병이 공략한 남경이 신라의 남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말갈병이 신라의 남경을 공략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많았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신라의 남경은 신라의 남쪽 경계선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신라의 남

쪽 경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일한 기록에 전하는 ‘고려남경’ 역시 ‘고려의 남쪽 경역’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실제로 ㉠, ㉡ 기록의 ‘고려남경’을 ‘고려(고구려)의 남쪽 경계선’으로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638년(선덕여왕 7) 10월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인 칠중성을 침략하였다고 하였다.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하였다. 칠중성 북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신당서』 신라전에 상원(上元) 원년에 유인궤가 병사를 이끌고 지름길로 호로하(瓠蘆河)를 건너 신라의 북방대진(大鎭) 칠중성을 깨트렸다고 전한다. 상원 원년은 상원 2년(675)의 잘못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조에 전하는 답설인귀서에서 662년 정월에 고구려로 들어갔던 김유신 등이 신라로 돌아올 때 호로하(瓠蘆河)를 건넜다고 하였다. 호로하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위치한 호로그루 남쪽을 흐르는 임진강을 가리킨다. 호로그루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칠중성에 이른다. 따라서 유인궤는 호로그루 남쪽을 흐르는 임진강을 건너 신라의 북방대진 칠중성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75년(문무왕 15) 9월에 당군이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칠중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다고 신라본기에 전한다. 한편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임술년(662) 정월 23일에 김유신이 배를 타고 칠중하를 건너자, 장졸(將卒)이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역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의 남계와 신라의 북계가 칠중성 근처에 위치한 임진강을 가리키는 칠중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처럼 638년에서 675년까지 신라의 북계와 고구려의 남계가 임진강이었고, ㉡ 기록의 ‘고려남경’이 ‘고려의 남쪽 경계선’을 이룬다고 이해한다면,

㉠ 기록에서 ‘마침내 고려남경에 이르렀다(遂抵高麗南境矣)’라고 언급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전부터 675년까지 계속해서 신라의 북쪽과 고구려의 남쪽 경계선이 임진강이었는데, 『신당서』의 찬자가 굳이 이때에 신라가 마침내, 즉 비로소 고려의 남쪽 경계선인 임진강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가 675년 이전에 백제의 토지를 차지하고, 마침내 675년에 고구려의 남쪽 경계였던 임진강을 건너 고구려의 남쪽 경역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신당서』의 찬자가 ‘遂抵高麗南境矣’라고 표기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신라가 675년 무렵에 고구려의 남쪽 경역을 군현으로 편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9 경덕왕 7년 가을 8월 기록에 처음으로 대곡성(大谷城) 등 14개의 군현을 두었다고 전한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경덕왕 7년(748) 8월에 설치한 군·현은 대곡군(大谷郡: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수곡성현(水谷城縣: 북한 황해북도 신계군), 동삼홀군(冬乡忽郡: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도납현(刀臘縣: 북한 황해남도 백천군)뿐이고, 나머지 10군·현은 경덕왕 21년(762)과 헌덕왕 때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⁰⁰⁷ 대곡군을 비롯한 4군·현은 예성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였다. 748년(경덕왕 7) 이전에 신라가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군·현으로 편제하였음을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언제 신라가 이곳을 군·현으로 편제하였을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694년(효소왕 3) 겨울에 송악성(부소갑)과 우잠성을 쌓았고, 713년(성덕왕 12) 12월에 개성(동비홀)을 쌓았다고 하였다. 종래에 성을 쌓은 것을 신라가 비로소 이들 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한 사실과 결부시켜, 694년과 713년에 비로소 송악군과 우잠군, 개성군을 설치하였다고 보았다.⁰⁰⁸ 그렇다면 과연 성을 쌓은 것을 곧바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한

사실과 직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까?

개성군은 우잠군의 남쪽, 송악군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694년에 우잠성과 송악성을 쌓았으므로, 당시에 개성(동비홀)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713년에 개성을 쌓았다고 하여, 당시에 개성이 비로소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효소왕 때 비열홀(북한의 강원도 안변군)에 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669년(문무왕 9) 5월에 천정(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덕원리)과 비열홀, 각련(북한의 강원도 회양군 회양읍) 등 3군의 백성이 굽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또한 지리지에서 천정군을 681년(문무왕 21)에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고 하였는데, 문무왕 9년 이후에 안동도호부가 천정군을 빼앗았다가 681년에 다시 신라가 빼앗았음을 알려준다. 더군다나 신라 정부는 681년에 사찬 무신으로 하여금 정예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비열홀을 지키게 하였다.⁰⁰⁹ 신라가 효소왕대 이전에 비열홀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효소왕대에 비열홀에 성을 쌓은 것을 그곳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한 사실과 직결시켜 이해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개성과 비열홀의 사례는 694년에 우잠과 송악에 성을 쌓은 것을 신라가 이때에 비로소 이들 지역을 영역으로 편입한 사실과 직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임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목된다. 그렇다면 신라가 우잠과 송악 등을 군으로 편제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678년(문무왕 18) 9월에 당 고종이 병사를 일으켜 신라를 토벌하려 하자, 시중 장문관(張文瓘)이 ‘지금 토번이 침략하였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쪽을 토벌해야 합니다. 신라는 비록 당에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일찍이(당의) 변방을 침략하지는 않았습시다. 만약 또한 동쪽의 정벌에 나선다면, 신은 공사(公私)로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시다’라고 간언하니, 고종이 이에

그쳤다고 『자치통감』에 전한다.⁰¹⁰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735년(성덕왕 34)에 ‘당이 패강 이남 지역을 신라에게 사여하였다(勅賜溟江以南地)’고 전한다. 이후 신라는 패강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여, 748년(경덕왕 7)부터 헌덕왕대까지 예성강 이북과 대동강 사이에 14군·현을 설치하였다. 735년 이후에 신라가 비로소 예성강을 넘어 패강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을 보건대, 신라인들이 예성강 이북 지역을 당의 영토로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라와 당의 완충지대로 인식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장문관이 말한 당나라의 변방은 예성강 이북 지역 또는 평양 이북 지역을 가리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를 통해 신라인들은 예성강 이남 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694년에 우잡과 송악에, 713년에 개성(동비홀)에 성을 쌓은 것도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은 676년 2월에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이동시키고, 웅진도독부도 건안성으로 교치(僑置)시켰다. 676년 11월에 기벌포에서 당군이 신라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이후 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694년에 우잡과 송악에 성을 쌓았음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인들이 7세기 후반에 임진강 북쪽과 예성강 남쪽 지역을 군과 현으로 편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⁰¹¹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위치한 한산주 소속 군과 현은 오사함달현, 이진매현, 우잡군, 장항현, 장천성현, 마전천현, 부소갑, 약두치현, 굴어갑, 덕물현, 동비홀, 진임현 등 12군·현에 불과하다.⁰¹² 648년에 당과 신라가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 이남은 신라가, 그 이북은 당이 영유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신라는 675년 무렵에 예성강과 대동강 사이의 고구려 경역을 군·현으로 편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라가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역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675년에 군·현으로 편제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7세기 후반에 신라의 북계가 임진강이었다고 이해한 전제 위에서 7세기 중후반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을 신라에 의한 백제병합(통합)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평양이남백제토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명명하는 연구자들(이하 삼국통일전쟁론자)과 백제병합전쟁론자들 사이에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자료가 바로 다음의 기록이다.

선왕(태종 무열왕)께서 정관(貞觀) 22년(648)에 (당에) 들어가 조회하여 (당의) 태종 문황제를 직접 뵈고 은혜로운 칙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르기를,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 매번 침략을 당하여 편할 때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하는 바가 아니고, 보배[玉帛]와 사람들은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이남백제토지를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평안하게 하겠다(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고 하고는 계책을 내려주시고 군사 행동의 기일을 정해주셨습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위의 기록은 당의 장수 설인귀가 보낸 편지에 대해 문무왕이 답서를 보

낸 것 가운데 일부이다. 648년에 신라의 김춘추와 당 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흔히 나당동맹이라고 부른다. 위의 기록은 두 사람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에 ‘평양이남백제토지’는 신라가 영유하고 평양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당이 영유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⁰¹³

종래에 삼국통일전쟁론자는 ‘평양이남백제토지’를 ‘고구려 영역 가운데 평양 이남과 백제 영토’로 해석하였고,⁰¹⁴ 백제병합전쟁론자들은 ‘평양 이남의 백제 영토’ 또는 ‘평양 이남이 곧 백제 영토’라고 해석하였다. ‘평양이남백제토지’를 ‘평양 이남의 백제 영토’라고 해석한 연구자는 당이 평양 이남에서 백제 영토만을 신라에게 할양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아울러 당 태종이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은 고구려 정복에 신라의 후원을 얻기 위해 고구려 원정도 신라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유인한 책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⁰¹⁵ 그리고 ‘평양 이남이 곧 백제 영토’라고 해석한 연구자는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한 이후에 백제 토지는 신라가, 고구려 영토는 당이 차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신라는 평양 이남을 백제의 영토로 인식한 백제인들의 인식을 근거로 하여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역을 신라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이해하였다.⁰¹⁶ 약간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긴 하지만, 두 연구자는 신라가 백제 영토만을 병합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밑줄 친 ㉔ 기록의 ‘평양이남백제토지’에 대한 여러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평양이남백제토지’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 648년 당시 김춘추와 당 태종, 그리고 671년 답설인귀서를 지은 주체인 문무왕의 평양 및 백제 토지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평양은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현재의 평양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고 있다. 김춘추와 당 태종, 문무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라는 553년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637년(선덕여왕 6)에 신라는 신주를 한산주와 우수주로 분할하였는데, 한산주는 경기도와 충북 북부 지역을 망라하는 범위였다.⁹⁷ 『삼국사기』 소나열전에 '사산현(蛇山縣)의 경계가 백제의 땅과 맞물려 있으므로, 거의 매달 서로의 침입과 공격이 벌어졌다'라고 전한다. 이 기록은 7세기 전반 선덕여왕 때 오늘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해당하는 사산현이 백제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한편 649년(진덕여왕 3) 8월에 김유신 등이 이끄는 신라군이 도살성(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주둔하면서 백제군과 싸워 크게 이겼다는 기록이 신라본기에 전한다. 그리고 김유신열전에 595년에 김서현이 만노군(충북 진천군 진천읍) 태수로 재직할 때에 김유신을 낳았다고 전한다. 따라서 7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경계는 아산만에서 천안시 직산읍, 진천읍, 증평군 도안면을 연결하는 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7세기 전반 백제의 영토는 충남 천안시 직산읍 이남의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을 망라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7세기 전반에 고구려와 백제는 각기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영토라고 인식하였고, 이곳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642년(선덕여왕 11) 대야성 상실 이후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보장왕이 김춘추에게 '죽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네가 만약 죽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한다. 김유신열전에서는 보장왕이 마목현(麻木峴)과 죽령이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644년(보장왕 3)에 고구려를 방문한 당나라 상리현장(相里玄奘)에게 연개소문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 신라가 고구려의 땅 500리를 빼앗고 그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신라가 빼앗은 땅을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라에 대한 침략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기록이 『책부원귀』 등 여러 사서에 보인다.⁰¹⁸ 640년대에 고구려가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다.

종래에는 근고초왕 때 백제가 평양으로 진출한 이래, 평양 내지 대동강을 영토의 북방 경계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⁰¹⁹ 『주서』와 『수서』 백제전에 구태(仇台)가 처음에 대방(帶方) 또는 대방의 옛 땅에 백제를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주서』는 북주(557~589)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를 시조로 하는 인식은 사비 도읍기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6세기 중후반에 백제인들이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대방의 옛 땅을 본래 백제와 연고가 깊은 곳으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속일본기(續日本紀)』 권40 환무천황(桓武天皇) 연력(延曆) 8년(789) 12월과 연력 9년 7월 기록에는 백제의 원조(遠祖) 또는 태조(太祖)가 도모(都慕)였다고 전한다. 여기서 도모는 추모(鄒牟), 즉 주몽(朱蒙)을 가리킨다.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의 시조 인식을 반영한 것인데, 여기에서 백제 말기에 도모의 아들인 온조를 백제의 시조로 인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온조(溫祚)를 시조로서 인식한 7세기 전·중반에⁰²⁰ 백제인들이 과연 대방 지역을 수복해야 할 고지(故地)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627년(무왕 28) 7월에 무왕이 신라가 빼앗은 땅을 회복하려고(王欲復新羅侵奪地分) 크게 군대를 일으켜 웅진(충남 공주)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신라왕 진평이 이를 알고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무왕이 그만두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은 구체적으로 한강 유역을 가리킨다고 이해된

다.

7세기 전반에 백제인들이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고토라고 생각하였음은 분명하지만, 대방의 옛 땅을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생각하였는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게다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648년에 당 태종과 김춘추, 671년에 문무왕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본래 백제의 영토라고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무왕의 답설인귀서에 '(670년)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펴서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百濟舊地)을 모두 (웅진도독부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670년 무렵에 당나라가 백제의 영토를 660년 멸망할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인식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648년 당시 당 태종도 동일한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신라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임진강 이북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임진강 이북은 고구려의 영토였고, 천안시 직산읍과 충북 진천을 잇는 경계선 아래의 충남과 전북·전남 지역은 백제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김춘추와 당 태종이 648년에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평양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다음,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이후 백제 토지는 신라가, 고구려 영토는 당이 차지한다고 합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671년에 문무왕 역시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가 본래 백제의 영토였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㊸ 기록에 전하는 평양이 오늘날 서울 지역을 가리키는 남평양을 이른다고 본다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640년

대에 신라와 당나라 사람들은 ㉔ 기록에 전하는 ‘평양’을 분명하게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7세기 전·중반에 신라인과 당나라 사람들이 임진강 이북이 고구려의 영토였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현실을 전제한다면, ‘평양이남백제토지’를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토지를 모두 망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은 ㉔ 기록에 보이는 ‘병(並)자’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8년 10월 22일 기록에 ‘대당소감 본득은 사천전투에서 공이 첫째였고, (...)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에서의 싸움에서 공이 제일 컸으므로 모두[並]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벼 1천 석을 내려주었다’고 전한다. 또한 문무왕의 답설인귀서에 건봉(乾封) 2년(667)에 당군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문무왕이 정탐을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정탐이 돌아와 모두[並] 말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두 기록에서 ‘병(並)’은 둘 이상의 어떤 대상을 총칭하여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㉔ 기록에서 ‘平壤已南百濟土地’를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라고 해석한다면, ‘並乞你新羅’가 아니라 단지 ‘乞你新羅’라고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그런데 굳이 ‘병(並)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이 ‘平壤已南百濟土地’에서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를 별개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인들이 당 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이후에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토지를 모두 신라에게 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並乞你新羅’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맥상으로 보건대, 또는 7세기 중후반에 신라와 당나라 사람들이 임진강 이북과 평양 이남을 고구려의 영토였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건대, 648년에 김춘추와 당 태종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에 평양 이북의 고구려 영토는 당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토지는 신라가 차지한다고 합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7세기 중후반에 신라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토 일부까지 병합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정리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신라는 과연 고구려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을까?

고구려는 6세기 중반에 북제의 군사·외교적 압력과 돌궐의 위협으로 서북 정세가 불안해지고, 게다가 국내에서는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자,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⁰²¹ 그런데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양강왕(영양왕의 잘못)이 즉위하자,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 출정하여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전한다. 영양왕이 즉위한 590년 무렵에 고구려가 신라와의 동맹을 깨트리고 과거에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7세기에 들어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자, 608년(진평왕 30)에 진평왕은 원광법사에게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 결사표를 짓게 하였고, 611년(진평왕 33)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결사표를 올려 군사를 청하자, 수양제가 그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⁰²² 수양제는 이후 몇 년에 걸쳐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신라는 7세기에 들어 백제와 치

열하게 항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나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642년에 백제가 대야성(경남 합천)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고구려에 들어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신라가 빼앗은 한강 유역을 돌려주면 지원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신라가 이를 거절하였다. 642년에 김춘추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을 통해 당시까지 김춘추를 비롯한 신라인들은 백제의 정복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고구려를 통합 또는 평정의 대상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643년에 신라 선덕여왕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므로, 군사를 내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당 태종은 다음 해에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보내 신라를 침략하지 말라고 압박하였으나, 연개소문은 신라가 빼앗은 한강 유역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라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⁰²³ 신라는 연개소문이 신라를 계속 침략하겠다고 공언한 사실과 당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하려는 뜻을 알고는, 단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도 함께 평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입각하여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자, 당을 성원하기 위해 군사 3만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한 것으로 이해된다.⁰²⁴

김춘추는 648년에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기로 당 태종과 합의하였다. 김춘추와 당 태종이 두 나라를 평정한 이후 당이 평양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신라가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토지를

차지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신라는 단지 백제의 병합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의 일부 영역까지 병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춘추는 654년 왕위에 오른 후 백제의 정복에 집중하여, 마침내 660년에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1년에 태종 무열왕이 서거하고, 그 뒤를 이어 즉위한 문무왕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의 평정에 국력을 기울였다. 666년(문무왕 6) 4월에 문무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고, 드디어 668년에 당과 함께 고구려를 평정하였다.

문무왕이 669년 2월 21일에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교시를 내렸는데, 여기에서 ‘(선왕께서는) 백제는 비록 평정하였으나 고구려는 멸망시키지 못하였다. 과인이 평정하려고 한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문무왕이 선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평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648년에 태종이 약속하였던 백제 토지와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신라에게 양도하지 않고,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통치하는 한편, 신라마저 당의 기미주로 삼으려고 의도하였다. 이에 신라인들은 신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한편, 백제 토지와 고구려 남쪽 경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기 위해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670년(문무왕 10) 7월에 전해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김흠순 등이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경계를 그린 지도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지도에는 옛 백제 토지가 모두 웅진도독부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당이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양도하지 않고, 웅진도독부를 통해 계속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신라는 백제와 신라를 한 나라로 통합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당에 밝히려고 하였으나, 사신이 당으로 가다

표류하여 중도에 돌아왔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문무왕의 답설인귀서에 전한다. 비록 당나라에 신라의 뜻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통해 신라가 백제를 통합하려고 의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670년 7월에 당나라가 분명하게 신라에게 백제 영토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서 당군을 축출하는 전쟁에 돌입하여 웅진도독부 관할의 82성을 빼앗았다. 이 해 12월에 한성주 총관 수세가 신라를 배반하고 웅진도독부에 붙으려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고, 신라는 671년에 웅진 남쪽, 가림성, 석성(부여군 석성면) 등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옛 백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672년에 당군이 고생성과 가림성에서 신라군에 저항하였으나 대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신라는 672년에 백제민으로 9서당의 하나인 백금서당을 창설하였는데, 백제 유민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또한 신라는 673년에 백제의 지배층에게 그들이 사여받은 백제 관등에 견주어 신라의 경위와 외위를 수여하였다. 673년에 제작된 계유명(癸酉銘) 아미타삼존사면석상(阿彌陀三尊四面石像)과 계유명(癸酉銘) 삼존천불비상(三尊千佛碑像)에 새긴 명문에서 연기 지역의 옛 백제 지배층이 신라의 관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 그들이 신라의 국왕과 대신 및 7세부모(七世父母)와 모든 영혼을 위하여 삼가 절을 지었다고 전하는데, 673년 무렵에 백제 유민을 포섭하려는 신라의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보건대 대체로 673년 무렵에 신라에 의한 백제통합(병합)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670년 3월에 사찬 설오유가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와 함께 각기 정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당군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이 백제 영토와 고구려 남쪽 경역을 신라에게 양도하지 않자, 이에 반

발하여 신라가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군을 공격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⁰²⁵ 이 해 4월 이전에 수립성 사람 검모잠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6월에 보장왕의 외손인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삼아 한성(옛 황해도 재령)을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승은 670년 후반에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하였는데, 이후, 고구려 유민과 신라군이 힘을 합쳐 당군과 전쟁을 치렀고, 고구려 유민이 신라군에 편입된 것은 673년 윤5월경이었다. 『신당서』와 『자치통감』에 673년 윤5월에 이근행이 호로하의 서쪽에서 고구려 유민을 크게 물리치자,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고 전하는 것에서⁰²⁶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군은 이후 당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였고, 675년에 매소성에 주둔하던 당군을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중국 사서는 매소성에서 당군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전하는 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근행이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자, 신라군이 당군을 공격하여 말 30,380필을 얻었으며, 그 밖에 획득한 병기도 이만큼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중국 사서보다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당군과 신라군이 여러 전투에서 맞서 싸워 대부분 신라군이 승리하였다고 『삼국사기』에 전한다.⁰²⁷ 당은 이후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676년 11월에 바다를 통해 기벌포를 공격하였다가 신라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문무왕이 당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평정하는 데 적극 나섰던 것은 일차적으로 전쟁을 종식시켜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회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백제 토지와 더불어 고구려의 남쪽 경역을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평정한 이후에 당나라가 백제 토지와 고구려의 남쪽 경역을 신라에게 양도하지 않자, 문무왕은 백제 토지와 고구려 남쪽 경역을 차지하기 위해 당과의 전쟁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백제 토지 및 임진강 이북과 예성강 이남의 고구려 경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683년(신문왕 3)에는 고구려민으로 9서당의 하나인 황금서당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686년(신문왕 6)에 보덕성민으로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이 편성되었다. 한편 686년(신문왕 6)에 고구려인에게 그들이 고구려에서 수여받은 관등에 견주어 신라의 관등(경위)을 내려주었다. 신라는 683년(신문왕 3) 10월에 안승을 불러 소관으로 삼고, 김씨 성을 주어 왕경에 머물게 하고 훌륭한 집과 좋은 토지를 주었는데, 이는 보덕국을 해체하고 안승을 신라의 진골로 편제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해에 안승의 조카뻘인 장군 대문(大文)이 반역을 꾀하였다가 참수되었고, 남은 무리들이 금마저(전북 익산시 금마읍)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이후 신라는 686년에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에게 신라의 관등을 수여하는 한편, 그들을 중심으로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을 창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675년 매소성전투 이후 임진강 이북과 예성강 이남의 고구려 경역을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하였으므로, 이들을 신라민과 융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683년에 고구려민으로 황금서당을 창설한 사실과, 『삼국사기』 김영윤열전에 신문대왕 때 고구려의 잔적(殘賊)인 실복(悉伏)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영윤이 황금서당 보기감(步騎監)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였다고 전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684년(신문왕 4) 11월에 안승의 조카뻘인 대문이 반역을 꾀하였다가 참수되자, 실복이 보덕국의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인데,

반란의 진압에 황금서당이 동원된 것으로 보건대 황금서당의 군사로 편제된 고구려민은 보덕성의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새로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된 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686년에 보덕성인에게 신라의 관등을 수여하였다고 전하지 않고, 고구려인에게 신라의 관등을 주었다고 전하므로, 이때에도 보덕성의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새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지역 고구려 유민의 지배층에게도 신라 관등을 수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필자의 추론이 허락된다면, 비록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 남쪽 경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고, 거기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쳤다고 정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5.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648년에 김춘추와 당 태종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평양 이북의 고구려 영토는 당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토지는 신라가 영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7세기 중후반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은 본질적으로 신라와 당이 영토와 인민을 확대하기 위해 벌인 정복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신라는 685년에 9주를 완비하였다. 상고시대에 중국은 전국을 9주로 나누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9주는 중국 전역을 총칭하는 용어 또는 천하나 세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라가 9주를 완비한 것은 신라인들이 인식한 천하 또는 세계를 모두 아울렀음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⁰²⁸ 신라인들은 9주 가운데 한산주와 우수주, 하서주를

옛 고구려 지역에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들 3주의 영역 가운데 675년 무렵에 신라가 새로 확보한 것은 임진강 이북에서 예성강 이남의 한산주 소속 12군·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신라인들은 백제, 고구려를 신라가 아울렀음을 강조하였다. 신라인들은 이것을 ‘일통삼한(一統三韓)’이라고 표현하였고, 자신들이 그러한 과업을 이룬 것에 대해 자부하였다. 7세기 중후반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은 본질적으로 당과 신라의 영토와 인민을 확대하기 위한 정복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신라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삼국민을 하나로 융합 또는 통합하기 위한 전쟁으로서 그 위상을 제고시켜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라인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신라는 백제 고지에 주(州) 3개, 소경(小京) 2개, 군 37개, 현 104개를 두었다. 반면에 고구려 남쪽 경역에는 겨우 12군·현만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7세기 중후반 전쟁의 결과, 신라가 새로 개척한 영토 가운데 백제 영토가 차지하는 비율이 92.4%, 고구려 남쪽 경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6%에 불과하였는데, 새로 확보한 고구려 주민의 비율도 역시 1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신라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군·현으로 편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675년 무렵에 신라가 새로 개척한 영토 가운데 신라에 편입된 고구려 영토와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과 상징성이 큰 고구려의 수도조차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하지 못한 측면을 두루 감안하건대, 신라인들이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까지 망라하여 삼국을 통일(통합)하였다고 인식하는데 대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7세기 중후반 한반도를 주요 무대로 전개된 전쟁을 신라에 의한 백제병합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일부 연구자의 주장에도 공감되는 점이 적지 않다

고 하겠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64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 정복 이후 평양을 기준으로 그 이남은 신라가, 그 이북은 당나라가 영유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 백제 토지와 함께 평양 이남의 고구려 경역 가운데 일부라도 군·현으로 편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라가 애초부터 백제의 병합만 염두에 두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전쟁을 전개한 것이라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신라는 7세기 후반에 실질적으로 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더 이상 당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차적으로 백제 고지에 대한 통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신라는 8세기 전반에 신라와 당의 관계가 나당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개선되고 백제 고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해지자 패강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마침내 748년에서 헌덕왕대에 걸쳐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발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신라는 헌덕왕대 이후에 원칙적으로 648년 당나라와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평양 이북 지역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를 계승한 태봉과 고려가 평양 이북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였는데, 결국 고려 초기에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고려의 영토로 확실하게 편입함으로써, 또 발해 유민과 영역 일부가 고려의 주민과 영역으로 편제됨으로써, 7세기 후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학자는 한국사 또는 민족사를 넘어 세계사적인 시야에서 이 전쟁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전쟁이 당과 일본, 그리고 거란과 말갈 등이 참여한 국제전의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²²⁹ 관점과 역사관에 따라 이 같은 네이밍에 동조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명하면 전쟁을 주도한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이밍을 통해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의 동인(動因)과 영향 등에 대해 연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신라인의 입장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주도한 주체와 전쟁을 일으킨 목적 등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고, 전쟁의 동인과 영향 등도 쉽게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648년부터 676년까지 한반도를 주요 무대로 하여 전개된 전쟁을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 전쟁'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자 한다. 비록 신라가 7세기 후반에 새로 개척한 영토와 주민 가운데서는 백제 영토와 주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고, 고구려의 영역과 주민은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인들이 고구려·백제 유민과 함께 당에 맞서 항쟁하였고, 8세기 중반에서 고려 초기에 걸쳐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뿐만 아니라 그 이북 지역까지도 신라 또는 고려의 영토로 확보하여 7세기 후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한계를 계속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과, 오늘날 한국 민족과 문화의 원형이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측면 등을 필자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통합)전쟁이라고 부를 때, 백제와 고구려 평정을 주도한 당의 존재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일본의 존재를 네이밍을 통해 연상할 수 없는 한계가 노출된다. 또한 고구려 유민 가운데 절대 다수가 향후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서 이탈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가 중심이 되어 698년에 발해를 건국하고 그 지배층이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미묘한 경쟁 관계가 형성된 측면 등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삼국통일(통합)전쟁이 유일무이한 네이밍이라고 강변하고 싶지 않다. 각자의 역사관이거나 어느 국가 또는 민족 구성원이나에 따라 네이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모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7세기 중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㉞

전덕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고대사를 전공했으며, 최근의 관심 주제는 삼국사기 원전과 편찬 과정이다. 대표논문으로 『신라육부체제연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신라 왕경의 역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 김영하,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 김영하, 「신라 통일론의 궤적과 함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출판부, 2012.
- 김영하, 「신라의 '통일' 영역 문제—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신라사학보』 56, 2014.
-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
-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와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 박남수, 「신라 문무왕대의 삼국통일과 종교제 정비」, 『신라사학보』 32, 2016.
-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拜根興, 「신라 문무왕대의 대당외교」, 『신라문화』 16, 1999.
- 윤경진, 「671년 '답설인귀서'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60, 2016.
-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①.
- 윤경진,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한국고대사연구』 92, 2019②.
-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1976.
- 이재환,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2019.
- 전덕재, 「신라 중고기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01.
- 주보돈, 「신라사의 시기구분과 흐름」, 『신라사총론』(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1), 경상북도, 2016.

주

- 001 이재환,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2019.
- 002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주보돈, 「신라사의 시기구분과 흐름」, 『신라사총론』(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1), 경상북도, 2016.
- 003 김영하,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김영하, 「신라 통일론의 궤적과 함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출판부, 2012;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 윤경진,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2019①; 윤경진,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한국고대사연구』 92, 2019②; 김종복, 「7~8세기 나당관계와 추이」, 『역사비평』 127, 2019.
- 004 신라의 삼국통일(통합)을 인정하는 연구자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 유민 일부가 발해를 건국하여 통일신라와 병존하였다고 이해한 반면, 백제병합(통합) 전쟁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고구려 옛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이 따로 발해를 건국하여 백제를 병합한 신라와 남북국시대를 이루었다가, 고려가 두 나라를 통합한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 005 김영하, 앞의 논문, 2018, 252~254쪽. 한편 백제통합전쟁을 주창한 윤경진은 ‘고구려 남경’은 신라가 당이 패강 지역을 사여한 성덕왕대 이후에 최종 확보한 영토의 상한인대 동강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였다. 윤경진, 앞의 논문, 2019②, 276~282쪽.
- 006 宗福邦·陳世饒·蕭海波主編,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3, 442쪽에서 ‘境’은 ‘疆’, ‘界’, ‘壤’의 뜻이 있다고 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 3, 2000, 664쪽에 서는 ‘境’은 국경, 변경이란 뜻과 더불어 장소, 구역, 지역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 007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4, 1976;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213~215쪽.
- 008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05~206쪽; 김영하, 「신라의 ‘통일’ 영역 문제—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신라사학보』 56, 2014, 25쪽 및 김종복, 앞의 논문, 2019, 253~254쪽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 009 『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 제7문무왕 21년 정월.
- 010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3년9월 辛酉.

- 011 박남수, 「신라 문무왕대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2, 2016, 308쪽에서 신라가 나당전쟁 중에 임진강을 건너 고구려의 남쪽 경역으로 진출하였다고 보았다.
- 012 신라는 한산주 소속의 아진압현과 철원군, 부양현, 승랑현, 공목달현, 부여군, 소읍두현 등을 문무왕 15년 이전에 신라의 영토로 편제하였다.
- 013 김춘추와 당 태종이 평양을 기준으로 고구려와 백제 영토를 분할하여 영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학자는 이와 같은 합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拜根興, 「신라 문무왕대의 대당외교」, 『신라문화』 16, 1999, 87~88쪽). 그러나 문무왕이 671년에 당나라 장수 설인귀에게 보낸 편지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므로, 편지를 받는 설인귀도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014 노태돈, 앞의 논문, 2011, 331쪽.
- 015 김영하, 앞의 책, 2012, 180쪽.
- 016 윤경진, 앞의 논문, 2019①, 15쪽.
- 017 전덕재, 「신라 중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01, 63~66쪽.
- 018 『책부원귀』 권95 외신부 교침 태종 정관 17년;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7년 및 18년; 『구당서』 신라전.
- 019 윤경진, 「671년 ‘답설인귀서’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60, 2016, 29~30쪽.
- 020 『일본서기』 권19 欽明天皇 16년 2월 기록에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성왕이 죽임을 당하자, 왜의 관리가 ‘나라를 세운 신(建邦之神)’에 대한 제사를 철폐하고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시 그에 대한 제사를 받들어 올리면 국가가 번창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나라를 세운 신은 온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6세기 후반 또는 그 이후 시기에 다시 온조를 시조로 바꾸어 인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021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395~435쪽.
- 022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제5 진평왕 30년 및 33년.
- 023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제5 선덕여왕 12년 9월 및 13년 정월.
- 024 『구당서』와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당 태종이 645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자, 이에 호응하여 신라 선덕여왕이 군사 5만으로 하여금 고구려 남쪽 변경을 침략하게 하여 水口城을 함락시켰다고 하였다.
- 025 노태돈, 앞의 책, 2009, 250쪽에서 만주 신성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의 주력을 묶어두고, 백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작전을 벌였다고 이해하였다.
- 026 『신당서』 권5 본기 제5 고종 함형 4년 윤5월 정묘;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4년 윤5월.

027 『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5년 9월 기록에 ‘우리(신라) 군사가 당나라 군사
와 열여덟 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이겨 6,705명을 목 베고 말 200필을 얻었다’
고 전한다.

028 노태돈, 앞의 논문, 2011, 334~335쪽.

029 이재환, 앞의 논문, 2019.

접수 2019-07-12 ● 수정 2019-08-13 ● 게재확정 2019-08-14

with the gist of a graduation quota system was enacted. As such, the era in which full-fledged higher education was popularized was opened.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popularized, by arranging and analyzing some reasons why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as sharply increased in 1979. Her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found: first, the popularization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was not achieved by a consistent higher education policy, but forced by social transition and pressure; second,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plann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sistently carried out, primarily because the policy was focused on some parts unrelated with education; third, the 7·30 Actions for Educational Reformation was hastily pursued, without adequate preliminary arrangements. The Korean higher education which just began to be popularized could not but undergo more harsh adversity.

Keyword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higher education; popularization; the 7·30 Actions for Educational Reformation; a graduation quota system.

● Did Silla Try to Unify the Three Kingdoms?

Jeon Deogjae

In 648, Chunchu Kim and the Emperor Taizong of Tang dynasty made an arrangement that if they defeat Baekje and Goguryeo, Tang would occupy the Goguryeo territory in the north of Pyeongyang and Silla would occupy the Goguryeo territory in the south of Pyeongyang along with the Baekje territory. However, after they defeated Baekje and Goguryeo, Tang did not honor the arrangement and directly governed the Baekje and Goguryeo territories in the south of Pyeongyang, without transferring them to Silla as promised. Tang even tried to make Silla one of its province, Gimiju(羈靡州). Therefore, Silla waged a war against the Tang Dynasty to retrieve Baekje and southern Goguryeo territories, and to protect its sovereignty. Eventually, Silla succeeded in occupying the Baekje territory in the early 670s. It also merged the Goguryeo territory located between the north of the Imjin River and the south of the Yeseong River as one of its counties and prefectures. Silla also strived to integrate the Baekje refugees and the Goguryeo refugees who lived in the southern Goguryeo territory into its society.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name the war in the middle and late of the 7th century as a 'Silla's Baekje unification war'; rather, it is more reasonable to call it a "Silla's Unification War of Three Kingdoms".

Keywords: Unification War of Three Kingdoms; Baekje unification war; Southern Goguryeo territories; Baekje territory; Imjin River; Pyeongyang; Chunnchu Kim.

● The ‘Perception of Ilton-Samhan (Unification Three Hans)’ and the ‘Samhan’ as a Presentation

Ki, Kyoung-ryang

Recently, three opinions have been in confrontation over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Perception of Ilton-Samhan (Unification Three Hans)’. First, the theory that the perception of Ilton-Samin was formed with ‘the war of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7th century as a momentum; second, the theory that although the relevant perception appeared in the 7th century, it was a false consciousness made up irrelevant to the reality; and third, the theory that the perception of ‘Ilton-Samhan’ not only was a false consciousness but also the time of occurrence of that was the 9th century, relevant to the late Silla dynasty. Of them, the second view and the third view ar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so-called ‘war of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s not compatible with the actual historical fact and that the relevant war was just Silla’s war of the integration of Baekje. However, when the contents of various materials of the time,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Ilton-Samhan’ appeared in the 7th century is verified. The people of Shilla had a perception that they unified ‘the Land of Samhan,’ including Goguryeo as well as Baekje spatially. The term ‘Samhan’ used at the time was a concept of a historical and geographic space covering the central south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Pyongyang region. According to this, the slogan, ‘Samhan Ilton’ was a concept that had logical completeness itself unlike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mplying territorial imperfection.

Keywords: Three Hans; Ilton-Samhan;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heong-ju Uncheon-dong Silla Stele; a Presentation.